

[보도자료]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혜수 X 조여정 X 김지훈 X 김재철 캐스팅 및 제작 확정! 명품 제작진이 선사하는 연쇄 총돌 블랙코미디!

2026. 2. 5.





2026. 02. 05. -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연출: 이창희 | 극본: 정은경, 박수린 | 출연: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김재철)가 제작 확정 소식과 함께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행복한 가정을 팔아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이웃 집 의사 부부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능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는 연쇄 총돌 블랙코미디.

캐스팅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커리어를 쌓아온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화 <밀수>, 드라마 <트리거>, <슈룹> 등 매 작품마다 새로운 변신으로 독보적인 존재감과 압도적인 연기력을 입증해 온 김혜수는 더 큰 성공에 목마른 인테리어 회사의 CEO이자 인기 인플루언서 '경희' 역을 맡았다.

영화 <좀비탈>, <히든페이스>, <기생충>,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 등 강렬하고도 입체적인 캐릭터로 임팩트 있는 연기력을 선보여온 조여정은 '경희' 앞집에 사는 이웃이자, 곁에 남은 유일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피부과 원장 '수정'을 연기한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알미운 사랑>, 글로벌 프로젝트 <버터플라이>, 예능 <크라임씬 제로>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해 온 김지훈은 '경희'의 남편이자, 성공한 아내의 그늘에 가려 살아가는 배우 '재홍' 역을 맡았다.

영화 <파묘>로 천만 관객의 눈도장을 찍고 드라마 <알미운 사랑>,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온 김재철은 '수정'의 전남편이자 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성' 역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더할 예정이다.

이름만으로도 시선을 모으는 네 배우는 불륜으로 얽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며 예측 불가능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각 인물의 욕망을 폭발시키는 연기를 통해, 네 배우가 만들어낼 목직화 시너지에 기대가 쏠린다.

제작 확정과 함께 진행된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배우들의 호흡이 빠르게 맞춰지며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몰입도를 보여줬다. 팽팽한 긴장과 웃음이 교차하는 대사 속에서 작품의 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리딩을 마친 후 김혜수는 "모든 게 유니크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캐릭터들의 개성이나 앙상블도 재미있었다"라고 전했고, 조여정은 "한 사건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소동극이 배우들의 케미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많은 기대 부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지훈은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뻘하지 않은 신선한 느낌이 좋았다. 마지막 촬영까지 즐거운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재철 역시 "대본을 읽었을 때 느꼈던 짜릿함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창희 감독님의 세계 안에 펼쳐질 다양한 캐릭터들의 연기적 향연을 기대해달라.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라고 덧붙였다.

연출은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 <사라진 밤> 등으로 자신만의 감각을 인정받아 온 이창희 감독이 맡았다. 탄탄한 서사와 인물 관계를 밀도 있게 풀어내는 이창희 감독 특유의 연출력을 바탕으로, 블랙코미디의 결을 한층 세련된 호흡으로 완성해 낼 전망이다.

제작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황동혁 감독과 김지연 제작자가 공동 설립한 퍼스트맨 스튜디오가 맡는다. 특히 황동혁 감독은 쇼러너이자 제작자로 작품 전반의 완성도에 힘을 더한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만남과 황동혁 감독의 크리에이티브 참여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2026년 공개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